

배포
2024.4.1.(월)

보도자료

보도
2024.4.1.(월)
09:00 이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제목 ‘셀프 보수지급’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에 대한
이사승인 취소하라!

총 4 면

발신 :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문의 :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집행위원 김경수(010-9000-5895)

교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보도로 우리나라 교육정상화에 기여해 오며 불철주야 정론직필을 해 오신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셀프 보수지급’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에 대한 이사승인 취소하라!

‘셀프 보수지급’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
이사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시작하며

일정: 2024년 4월 1일(월)~4월 25일(목)

장소: 세종시 교육부 앞(월, 수 08:15-09:00)

평택대학교 정문 앞(화, 목 08:30-09:00)

주최: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이하, 공공성연대)는 4월 1일(월)부터 세종시 교육부 앞과 평택대학교 정문 앞에서 ‘셀프 보수지급’하고 구성원과 불통하며 대학정상화에 역행하는 이계안 이사장에 대한 이사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시작했다.

공공성연대는 그동안 이계안 이사장에 대해 현 이사회 구성과정과 보수지급을 포함한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취임’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계안 이사장은 ‘경영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둬하여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성연대는 교육부에 질의했고, 교육부는 “상임이사 보수액 책정 관련 근거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상임이사(이사장)의 보수를 책정한 것이 확인”되어, 이계안 이사장의 ‘셀프 보수지급’에 대해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97, 2024.1.10.).

더욱이 공공성연대는 이계안 이사장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교수들의 승진을 탈락시켜 교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세 명의 교수가 대학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학교를 떠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계안 이사장은 의결 되지도 않은 선재원 교수에 대한 징계를 불법 집행했고,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하여 소청권리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공공성연대는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고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에 따라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셀프 보수지급’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에 대한 이사승인 취소하라!

평택대는 임시이사체제를 마치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1년 반 가까이 지났으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사장과 총장이 불투명한 의혹을 감추고 시민, 구성원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대는 그동안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동현 총장은 2017-2022년 국고지원사업, 이계안 이사장은 2022년 이사회 구성과정과 본인의 보수지급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2024.1.10.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의 ‘셀프 보수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이계안 이사장의 정보공개 거부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으로 선임된 뒤에 정관 개정하여 자신이 상임이사로 취임하고 ‘셀프 보수지급’한 이계안 이사장을 규탄하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이계안 이사장(개방이사)의 이사승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육부 전 차관이 옹호했던 평택대 구재단

구재단에 의해 지배되던 2017년 평택대 대학평의원회 외부위원이 이후 교육부 차관이 되었다.

그는 2017년 당시 공공성강화 교수 대학평의원의 개방이사 선임절차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 구재단이 진행한 절차에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이 문제제기는 공공성강화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2017년 시작된 소송으로 이어져 불법 개방이사 선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구재단 퇴진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원고: 평택대 교수회 외 1인, 피고: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 2018다281142, 2019.2.14.).

2. ‘50억 클럽’ 의혹 광상도 전 의원으로 시작된 현 평택대 이사진

국회 속기 회의록(2020.9.20.)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은 평택대 사안을 장관에게 무리하게 질의했다.

설립자 행세하며 36년간 평택대를 지배했던 구재단 이사장과 직계가족을 몰아낸 제1기(2018-2020) 임시이사들의 거취에 관한 것이었다. 제1기 임시이사들은 일괄 사표를 냈다가 구성원의 요청으로 임기 연장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곽상도 의원의 질문취지는 왜 제1기 임시이사들의 사표처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교육부는 일부만을 교체 요청한 자신들이 파견한 제1기 임시이사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원 교체하여 제2기 임시이사회(2020-2022)를 구성했다.

3. 이계안 이사장의 ‘셀프 보수지급’

이계안 이사장은 평택대 제2기 임시이사가 포함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으로 개방이사가 되었다. 이사장으로 선임된 뒤에 정관을 개정하여 자신이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본 연대는 보수지급을 포함한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취임’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영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본 연대는 교육부에 질의했고, 교육부는 “상임이사 보수액 책정 관련 근거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상임이사(이사장)의 보수를 책정한 것이 확인”되어, 이계안 이사장의 ‘셀프 보수지급’에 대해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97, 2024.1.10.).

4. 이계안 이사장은 승진적격 교수들을 전례 없이 탈락시켰다.

이계안 이사장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교수들의 승진을 탈락시켜 교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세 명의 교수는 대학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학교를 떠났다.

이계안 이사장은 “회의에 불참한 교원들에게 페널티가 필요해 보이고, 이를 위해 이번 승진 탈락을 통해 명백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사회에서 발언했고, 이사회는 해당 교수들의 승진탈락을 결의했다. 자율적 참여 행사인 해당 회의에 대해 교원준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승진적격으로 판단한 교원인사규정을 무력화시켜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5. 이계안 이사장은 정보공개 주도한 선재원 교수를 불법 징계했다.

이계안 이사장은 의결 되지도 않은 선재원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불법 집행했고,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하여 소청권리를 박탈했다.

교내 법무감사팀에 10번에 걸쳐 반복한 익명의 ‘비공개’ 신고로 추진된 징계는 이사 정수 9인 중 5인이 찬성해야 적법한 의결이었으나, 당시 이사회에는 5인만이 출석했고, 출석한 5인 이사 중 이사 1인은 징계의결을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선재원 교수는 불법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7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이계안 이사장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이상과 같이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고,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따라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2.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승인을 취소하여 사학혁신 선도대학 평택대가 정상화되고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4년 4월 1일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학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



